

# 전남도, 미래 견인할 AI·우주산업 2026년 국비 1천614억

전라남도가 미래 세계경제의 핵심 동력인 AI산업의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에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총 1천614억 원의 AI·우주산업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수년간 추진한 'AI 중심지 전남 조성 전략'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비전'의 결실로, 대규모 국가 예산이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다.

전남도는 국내외 데이터 기업과 AI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오픈AI-SK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성공하며 대형 프로젝트의 기반을 다졌다.

이 결과 2026년 국비에 다양한 AI 관련 핵심사업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118억 원(총사업비 2조 5천억 원)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1천196억 원(총사업비 1조 200억 원) ▲대불산단 AX 실증 협업 플랫폼 구축 20억 원(총사업비 220억 원)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센터 구축 28억 원(총사업비 220억 원) ▲여수국가산단 AX 실증 산단 구축 20억 원(총사업비 205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제조혁신과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또 우주산업 관련 예산도 대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국가 AI컴퓨팅 센터 등 반영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등 우주산업도

거 확보해 글로벌 우주 강국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20억 원(총사업비 485억 원) ▲국방 발사지원시설 구축 6억 5천만 원(총사업비 417억 원) ▲민간 발사장 1단계, 2단계 조성 112억 원(총사업비

1천705억 원)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27억 원(총사업비 274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전남 우주산업 인프라 확충과 민간기업 참여 촉진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번 2026년 국비 확보 성과

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규 첨단사업을 적극 발굴, 2027년 국비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AI와 우주산업을 빠르게 추진할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북구, 지역 인재 '206명'에게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 17일 '(재)광주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 개최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와 (재)광주북구장학회(이사장 허정)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고 있다.

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생 선발 결과보고, 장학 증서 수여, 장학생 소감 발표 순으로 50여 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장학생 모집에는 총 307명이 접수했으며 분야별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를 거쳐 ▲종합대학생 127명 ▲전문대학생 39명 ▲고등학생 30명 ▲학교밖청소년 10명 등 총 206명이 최종 선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적 우수 장학생 101명 ▲저소득 장학생 77명 ▲특기 장학생 2명 ▲동행(봉사·선행 등) 장학생 26명으로 구분된다.

장학금 지급액은 1인당 ▲종합대학생 200만 원 ▲전문대학생 150만 원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각 70만 원이며 총 지급 규모는 3억 1,339만 원이다. 이는 전년도 지원 금액(3억 8백만 원) 대비 1.75% 증가한 규모다.

/송현근 기자

## 광주 남구, 식약처 선정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 작년 식중독 발생 '0건' 등 선제적 대처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5년 식중독 예방 관리 정책 평가에서 지역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 관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의 뛰어난 실적을 바탕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했다.

세부 평가지표로는 정책 계획의 완성

도와 추진 과정의 충실성, 정책 효과, 목표 달성도를 반영했다.

남구는 식중독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목표로 상시 예방 관리 체계 구축한 뒤 지난 2024년 한해 동안 관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집단급식소 등 집중 관리업소 154곳을 방문해 급식 재료 및 완제품을 사전 점검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일반음식점 등 61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100% 진행해 먹거리 사고 발생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임채일 기자

## '실증도시' 광주시, 시민이 직접 미래기술 써본다

### 12월17일~내년 1월11일 스탬프 투어 등 시민참여 진행

땀겨 작동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시민들이 지역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시민참여 혁신기술 실증 체험 프로그램'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실증 현장을 직접 찾아 기술을 경험하고 작동 원리를 확인하는 참여형 행사다.

행사에는 ▲썬오도텔즈(BCG(심탄도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썬헬프티처(AI 기반 상담) ▲썬레플러스(에너지자립형 스마트월터) ▲썬스페이스에이아이(AI 가상피팅 키오스크) ▲썬라라랩스(AI 우울증 분석 시스템) ▲썬소울소프트(AI 건강관리 앱 서비스 '재다') ▲썬에스유아이씨티(실시간 열차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 ▲썬텔퍼(자가건강관리 지원 시스템) 등 창업기업 8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실증 현장에서 시민을 대

상으로 기술을 직접 적용한다.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와 '실시간 교통안내 시스템'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상담·가상 입어보기(피팅) 무인 안내기(키오스크)·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을 실제 생활 환경에 구현해 시민이 사용성과 편의성을 체험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해당 기술은 인공지능(AI), 교통,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광주시는 실제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해 기술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실증 성과를 축적할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 '베리어 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를 통해 전극을 신체에 부착하지 않아도 의자에 앉아서 심박수·호흡수·스트레스 지수 등 생체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는 실증이 진행된다.

또 광주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에서는 실시간 열차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을 설치, 시민이 실제 이동 과정에서 정보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실증도시 광주' 곳곳에서 시민들이 인공지능·교통·헬스케어 등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을 피부로 느끼고 혁신 기술이 어

## 서구, 특별사법경찰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 민생 침해 사범 엄정 대처 및 수사역량 강화 노력 인정받아

문, 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됐다. 서구는 올해 식품위생·환경보호·청소년 보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선제적인 기획 단속을 실시하며 84%의 높은 기소율을 기록하는 등 엄정하

고 정확한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구는 광주시를 비롯해 서부경찰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위법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 수사

실무 교육 이수 확대 등을 통해 수사 인프라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민철 안전도시국장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불법 행위에 타협 없이 엄정히 대응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착한도시 서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광주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3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민생침해사범 단속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특별사법경찰 운영실적 ▲수사역량 강화 노력 ▲수사 기여도 등 4개 부

